

신세대주부의 가정경영의식·행동이 가정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Home Management Consciousness and Behavior on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New Generation
Housewiv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정우
교수 김명자
교수 계선자
조교수 박미석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Lee, Jung Woo
Professor : Kim, Myung Ja
Professor : Kye, Sun Ja
Assistant Professor : Park, Mee Sok

〈목 차〉

- | | |
|------------|---------------|
| I. 서 론 | II. 관련 연구 고찰 |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및 해석 |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among new generation housewives. Selected variables were home management consciousness and home management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Path analysis was used to test the causal model of quality of life.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834 housewives, and analyzed employing SPSS PC statistical packag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the quality of life.

2. Home management behavior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 via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on the quality of life.
3. Home management consciousness had indirect effect through home management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on the quality of lif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 서 론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여 물질적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자원부족·교통문제·환경오염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이 보다 행복하고 수준이 높게 영위 될 수 있을 지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삶의 질에 관한 논의는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연구·논의되고 있다.

신세대는 그 특성상 현대경제사회의 특징인 대량 생산·대량소비의 물결속에서 경제적으로 빈곤을 모른채 성장하여, 기존세대와 확실히 구분되는 가치의식 및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풍요로운 소비생활과 함께 현대식 자기표현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물론, 개성주의적·합리주의적·편의주의적인 생활을 지향하고 있다(이정우·김명자·계선자·박미석·지금수·김경숙·이정수·박미금, 1996). 이러한 신세대는 기존세대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가정 및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 세력으로서, 앞으로 2000년대를 이끌어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신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연구한다는 점은 매우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또한 사회가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가족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가족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이질성이 존재하며, 가정내 인간관계가 축소되어지는 현 상황하에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서적 여유를 추구하는 애정집단으로서의 가족기능이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는 점은 신세대가족에게서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삶의 질 향상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국 바람직한 가정경영을 통해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여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가정경영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이제껏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세대주부를 대상으로, 이들이 가정생활전반에 걸쳐 갖고 있는 가정경영의식이 가정경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또 이러한 의식과 행동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고찰

1. 신세대의 개념

세대의 의미는 계보상으로 항렬이 같은 사람들, 같은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 생애주기상 동일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출생한 사람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박재홍, 1995). 따라서 세대란 말은 사람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일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함으로써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함으로 인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유사한 의식구조나 행위유형, 생활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세대간에는 서로 다른 시기에 출생하여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하게됨으로 상이한 가치관이나 의식구조, 행동 및 생활양식을 가질 것으로 본다.

한편, 세대의 구분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연령을 토대로한 연구(조혜선, 1990; 한국사회학,

1990)가 있는가 하면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근거로 '전후세대', '베이비붐 세대', '신세대' 등 기성세대와 대비하여 짧은 충을 구분한 연구(김인숙·정용선, 1995; 박재홍, 1995; 윤춘화, 1994)가 있다.

신세대의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신세대는 구 세대에 대응되는 보통명사로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요즈음 말하는 신세대는 대략 70년대에 출생한 짧은 이들이라는 한정된 의미를 갖는 고유명사로 보기도 한다(박재홍, 1995). 또 신세대는 1954년 이후로 태어난 베이비붐세대 이후의 짧은 연령 집단으로서 30대를 주축으로 40대 초입에 들어선 사람들로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자녀로 두고 6,70대의 노인을 부모로 둔 집단을 의미하기도 한다(정현섭·박영숙, 1994). 또한 활동일(1994)은 60년대 초반 이전에 출생한 현재 30대 이상의 세대들과 대별하여 대략 6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70년대 중반까지를 포괄하는 짧은이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신세대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출생하여 1970년대의 경제성장과 80년대의 소비문화를 통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생산보다 소비, 근검 절약보다는 풍족한 자원의 사용을 보다 먼저 터득한 세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의 신세대 집단이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정생활의 여러면에서 갖고 있는 가정경영의식과 행동이 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1995년 현재, 결혼하여 자녀를 하나이상 둘 수 있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즉 60년대 이후에 출생하여 1995년 현재 35세 이하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2. 신세대주부의 가정경영의식 및 행동

가정경영은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즉 가정경영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사용방법을 효율화시켜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경영의 영역을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가족구성의 기본이 되는 가족관계, 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소비자를 포함

한 가계관리, 그리고 자원관리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정관리 등 세영역으로 구분하여 신세대 주부의 가정경영의식과 행동에 대해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

1) 가족관계

신세대는 가족관계전반에 걸쳐 외형적으로는 근대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듯하나, 내면적으로는 전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정신적·관념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서구화되었으나, 행동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실정이다.

먼저 신세대 부부역할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성역할태도와 관련지어 볼 때 평등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김정원, 1986; 옥선희, 1989), 가계부양의 역할을 부부공동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배희분·옥선희, 1993). 그러나 실제 역할수행면에서는 다른 세대보다는 높으며(김효숙, 1988; 김정원, 1986), 특히 부인에 비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행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한편, 가부장의식에서는 과거의 전통적 권위구조에서 부부가 권력을 공유하는 동료적 관계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이정연, 1991)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의식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이혜경, 1986).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사회변화로 인해 변화하게 되어 아들을 통한 가계계승과 노후의존으로서의 자녀의 존재를 중시하기보다 자녀의 양육자체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자녀를 통한 자아발전에 의의를 두고 그에 따라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와 상반되는 행동도 보여진다(한남재외, 1994).

친족관계면에서는 종래의 부계친편중의 친족의식이 평등적, 선택적, 상호 교환적인 관계로 변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신수진, 1993; 이광자, 1988). 실제 신세대의 친족관계행동면에서 근친과의 접촉빈도가 다른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광자, 1988; 전미경, 1993). 라이프 스타일유형에 따른 신세대의 가부장의식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신세대

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우외, 1996). 상·제례의식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동시에,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 모두 근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이길표, 1983; 박혜인·홍현주, 1987; 한남제외, 1994).

2) 가정관리

가정관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간의 가치, 목표, 그리고 표준에 의해 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로 관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여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 1994). 즉, 가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잘 활용시키려는 계획적 활동인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젊은 연령층의 경우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김미정, 1995), 이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정의 내적·외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부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이 기존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가정관리행동면에서도 대체로 주부의 연령이 낮은 경우 즉 신세대 주부일수록 가정관리행동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장명옥, 1976).

3) 소비자 및 가계관리

소비성향의식면에서 보면, 신세대는 감성을 중시하며 유행에 민감하나 기성세대의 과시를 위한 소비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실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아 과시소비·물질주의·구매중독 및 외국 상표선호성향이 높다는 견해(강혜경, 1995; 백경미, 1995; Mammen & Whan, 1987)가 혼재된 상태이다. 따라서 신세대의 소비성향은 소비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무절제한 소비가 아닌 필요에 따른 계획적인 소비의 일면도 보여진다.

신세대주부의 가계관리의식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재화·용역의 구입수단인 소득의 관리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의 효율적인 사용여부가 가족의 가

치관, 생활태도, 목표설정 및 달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대체로 저축을 위주로 하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이정우·오경희, 1988). 이점은 행동으로 연결되어, 신세대들의 금전관리행동과 구매행동 등의 소비자행동이 전전하며,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남은주, 1983; 노자경·최은숙, 1995).

3. 가정생활만족도와 관련연구

가정생활만족이란 가족과의 생활을 통하여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의 주관적인 감정 및 태도로, 가정생활 전반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이라 할 수 있다(두경자, 1990). 따라서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은 가족과의 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만족으로 전체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어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Park, 1992).

가정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양한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Burr(1970)는 가정생활만족을 재정문제의 처리능력, 사회적 활동, 가사작업의 수행, 동료감, 성생활, 자녀와의 관계 등 6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임정빈과 임혜경(1988)은 생활표준일치, 경제적 만족,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사노동, 자녀문제, 남편과의 관계, 시댁관계등 6개 하위영역과 생활전반에서 느끼는 만족을 양극연속형의 형태로 조사하였다. 또한 김경숙(1993)은 결혼전반, 재정문제, 시댁관계, 생활표준의 일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여가 및 지역사회 참여영역에서의 만족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그밖에도 이기영과 조영희의 연구(1992)에서는 만족도를 크게 경제적 측면(경제적 우려, 재정만족도)과 비경제적측면(전반적 생활만족도)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생활만족은 가정관리행동의 결과로 부터 얻는 만족으로 관리행동에 만족하는 관리자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주부가 계획행동을 효과적으로 할수록, 미래지향적인 계획행동과 부부평등적 의사결정체계를 지닐수록, 남편의

가사작업시간이 많을수록, 인간중심적 의사결정을 할 수록, 가정행사를 자주 계획·조직하며 목표를 빈번히 설정할수록, 안정지향적일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경숙(1993)의 연구에서도 가정관리능력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두경자(1990)도 관리만족도와 가정생활만족도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만족도를 가정생활의 전반에서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가정경영의식 및 행동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4. 삶의 질과 관련연구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풍요를 일찍이 이루한 서구 선진국에서 60년대 중반 이후에 사회복지의 중심과제로서, '삶의 질'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라는 개념으로 출발하여, 오늘날은 인간의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김동일·심재웅·강철인, 1981; 현오석, 1975).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정의는 접근방법, 목적, 관점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James는 삶의 질을 물질적·비물질적 성취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이라고 보았고, Liu는 인간의 안녕과 거주하는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느낌의 복합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앞의 학자들은 삶의 질을 욕망이나 욕구의 만족감으로서, 객관적인 환경조건이 포함되며, 일정한 수준의 주관성과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인간의 태도나 느낌의 척도인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지표가 주목을 받게 되고, 개인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인 행복감이 서로 일치한다는 연구결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된 삶의 질 연구가 활발히 나타났다(이기영, 1984; 박미석, 1996). 즉 과거에는 주로 객관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의 삶의 질을 논의하는 경

향이었다면, 점차 생활의 양적 측면이나 물질적·객관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비물질적·주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여러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자원들이 주관적인 삶의 질 인식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점은 인간의 삶을 기본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수준을 밝혀주는 객관적 지표가 이러한 자원이 주는 만족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를 예측하는데 영향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박미석, 1996). 따라서 근래에 이르러 삶의 질은 삶의 경험 및 관심영역에 대해 개개인이 판단하고 느끼는 것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서, Andrews와 Withey(1976)는 삶의 질이란 사람들이 결혼이나 가족, 주거, 직업, 친구, 이웃, 건강과 같은 삶의 영역에 대해 표준, 열망, 가치와 목표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지각하는 복지수준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Campbell과 그의 동료들(1976)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 그 자체보다는 그 자원이 주는 만족감에 따라 인간의 일반적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삶의 질은 인간이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삶 전반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가정생활만족도와 삶의 질과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Andrews & Withey, 1976; Bubolz et al., 1989; Campbell, 1981; Campbell et al., 1976; Park, 1992; Walker, Bubolz, & Park, 1991; 박미석, 1996). 즉 가정생활만족도는 결혼생활을 통해 갖게 되는 만족도로 삶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만족도가 신세대주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적 인과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용어의 정의

- 1) 신세대주부: 1960년 이후에 출생하여 경제성장

의 혜택을 누려 왔으며,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사람들로서 1995년 현재 만 35세 이하의 기혼여성으로 한정한다.

2) 가정경영의식

- 가족관계, 가정관리, 소비자 및 가계관리를 하위 영역으로 하여 이들영역에서의 의식정도를 의미한다.
- 가족관계의식: 부부간·부모자녀간 및 친족간의 관계에서 평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가정관리의식: 가정관리자로서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계획적이고 창의적으로 가정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자하며,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행동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식정도를 의미한다.
 - 소비자 및 가계관리의식: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사용하는데 나타나는 심리적 성향과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 및 합리적인 가계관리에 대한 의식정도를 의미한다.

3) 가정경영행동

가족관계, 가정관리, 소비자 및 가계관리의 하위영역에서의 관리행동수준을 의미한다.

- 가족관계행동: 부부간, 부모자녀간, 친족간의 관계 및 가정의례에서의 근대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가정관리행동: 가족의 가치나 목표, 그리고 표준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조함으로써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 소비자 및 가계관리행동: 신세대 주부들이 개인 또는 가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 및 지출을 하며, 제품·서비스를 실제로 구매·사용하는 소비자 역할 수행을 의미한다.

4) 가정생활만족도

가정생활속에서 가족들간의 상호작용가운데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수준을 의미한다.

5)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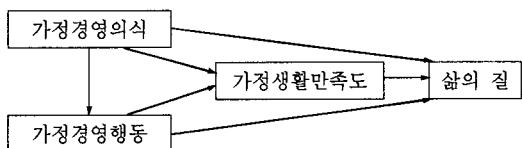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갖게 되는 삶 전반에 걸쳐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신세대주부의 가정경영의식, 가정경영행동, 가정생활만족도, 삶의 질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신세대주부의 삶의 질에 관한 인과관계를 잘 설명해주는가?

위의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 조사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가정경영의식·행동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 가정생활만족도 문항, 삶의 질 문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가정경영의식·행동문항은 세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첫째 가족관계영역은 옥선화(1989), 이정연(1991)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내용을 보면 남녀평등, 가부장, 자녀관, 친족관계, 상·제례 등의 영역에 있어 신세대들의 의식수준을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는데, 5점에 가까울수록 근대적인 경향을 의미한다. 둘째 가정관리영역은 장명숙(1976), 이정숙(1994), 김미정(1994)연구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 작성하였다. 각 항목은 5점 리커트척도로 이루어 졌는데, 점수가 높을 수록 신세대 기

흔남녀의 가정관리 의식과 행동이 합리적이고 우수함을 의미한다. 세째 소비자 및 가계관리영역은 박운아(1988), 장혜경(1992), 조은정(1994)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신세대의 소비자 및 가계관리 의식과 행동이 효율적·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만족도는 Schum과 그의 동료의 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 Scale(Schum et al., 198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전체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와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7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클수록 만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질은 Campbell과 그의 동료(1976)들이 만든 지표를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지표(KQOL: Korean Quality of Life, 박미석, 199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삶의 질은 개인이 삶 전반에 걸쳐 느끼는 만족감 정도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지겹다-흥미롭다, 슬프다-즐겁다, 가치없다-가치 있다, 공허하다-충만하다, 비관적이다-희망적이다, 보상감이 없다-보상감이 있다, 운이 나쁘다-운이 좋다의 7가지 어의차이로 구분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문항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전주, 강릉의 6개 도시에 거주하는 만 35세이하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는 1995년 12월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남녀 각각 1200부씩 총 24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전체 설문지는 총 1845부였으며, 그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1645부중 주부 834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빈도, 백분율, Cronbach의 α 계수,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및 중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척도의 영역별 신뢰도

변 인	신뢰도계수
가정경영의식	.54
	.87
	.75
가정경영행동	.42
	.75
	.76
가정생활만족도	.90
삶의 질	.82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34)

변 인	구 分	빈 도	백분율
학 력	고졸 이하	355	42.6
	대졸 이상	479	57.4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05	12.6
	100~150만원미만	221	26.5
	150~200만원미만	270	32.4
	200~250만원미만	83	10.0
	250만원이상	155	18.6
결혼지속 년 수	5년이하	313	37.5
	6~10년이하	484	58.0
	11년이상	37	4.4
가족형태	핵가족	714	85.6
	확대가족	120	14.4
자녀수	없음	41	4.9
	1명	211	25.3
	2명이상	582	69.8
직업	없음	506	60.7
	있음	328	39.3
용돈유무	없음	202	24.2
	있음	632	75.8
주택소유	없음	508	60.9
	있음	326	39.1
거주지역	서울시	316	37.9
	부산, 광주, 대전(광역시)	293	35.1
	강릉, 전주(중소도시)	225	27.0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 응답한 신세대 기혼여성의 학력을 보면 대졸이 상이 57.4%로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 응답자의 대부분이 10년이하의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2명이하의 자녀를 두고 핵가족의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의 경우 전업 주부가 60%를 넘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60.9%)가 소유한 경우 보다 훨씬 많았으나, 본연구에 응답한 신세대 주부의 상당수가 자신의 용돈을 따로 사용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5.8%).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신세대주부의 가정경영의식, 가정경영행동, 가정생활만족도, 삶의 질의 일반적 경향

1) 신세대주부의 가정경영의식 및 행동

신세대주부의 가정경영의식 및 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가정경영의식은 다소 높은 편으로, 비교적 근대적이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 핵가족화, 부부평등주의적 사고등 신세대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합리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실제로 가정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의식을 내면화한 결과로 보여지며, 이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사료된다.

가정경영행동도 다소 높은 편이나, 의식과 평균만으로 비교하여 볼 때,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신세대여성의 경우, 의식과 행동간의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세대주부들의 의식이 행동으로 연계됨에 있어서, 제약이 무엇인지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신세대주부들 스스로의 문제인지, 혹은 사회적 제약이나 구속이 존재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체계적인 가정경영교육과 홍보 및

대책이 수립되어진다면, 전반적인 가정경영행동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3〉 신세대주부의 변인별 일반적 경향 (n=834)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중앙값
가정경영의식	3.95	.27	3.96
가정경영행동	3.59	.30	3.56
가정생활만족도	5.32	1.11	5.50
삶의 질	4.96	1.18	5.02

2) 신세대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

신세대주부들의 가정생활만족도는 평균 5.32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점은 다른 가정생활만족도연구(최동숙, 1991)에서보다 높은 점수로, 가정생활주기와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신혼기와 초기자녀양육기인 이들은 다른 주기보다 높은 만족도를 지니며, 종래의 수직적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부부간의 수평적 상호관계를 지님으로서, 기존세대와는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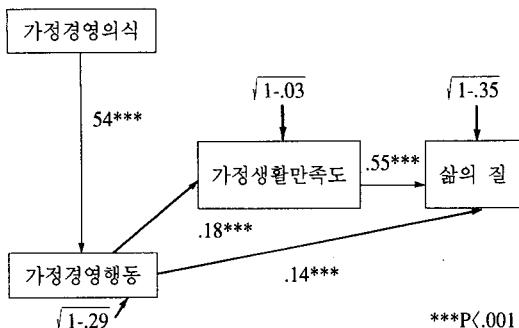
3) 신세대주부의 삶의 질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를 위해 응답한 신세대주부의 삶의 질은 평균 4.96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박미석(1996)의 중년기남녀의 삶의 질 연구와 공보처가 전국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질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공보처, 1995)와 비교할 때, 신세대주부가 삶에 대해 만족감을 좀 더 지니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2. 신세대주부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인과모형

〈그림 2〉는 신세대주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모형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생활만족도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었다($\beta=.55$, $p<.001$). 이러한 결과는 다른 모집단을 대



〈그림 2〉 신세대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경로모형

상으로 한 선행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중년기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에 있어서도 가정생활만족도가 개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석, 1996; Park, 1992; Walker et al., 1991). 또한 본 연구에서 종점적으로 보고자 한 것이 가정경영의식과 행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었는데, 가정경영행동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14$, $p<.001$), 가정경영의식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가정경영행동을 통해 ($\beta=.54$, $p<.001$)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경영행동은 가정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다($\beta=.18$, $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세대주부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은 가정생활만

족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세대주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를 나타낸 〈표 4〉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인들의 비인과적 효과가 -.04에서 .02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모형의 인과적 효과가 대체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총체적 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역시 가정생활만족도(.55, $p<.001$)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낸는 결과이다. 이점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이며, 성취 지향적인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신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가정이 출발점이며, 우애적·애정적 가정의 기능은 현재·미래에서도 무시 못할 자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신세대의 주부들에 있어서 가정경영행동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제 까지 다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 밝히고 있다. 즉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가정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정생활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연구가 미비했던 신세대를 대상으

〈표 4〉 신세대주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간접효과

변 인	총체적 효과*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정생활만족도	.57	.55	-	.55	.02
가정경영행동	.24	.14	.10	.24	.00
가정경영의식	.09	-	.05a	.05	-.04
		-	.08b	.08	

* 총체적 효과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임.

a) : 가정경영행동·가정생활만족도 경로 b): 가정경영행동 경로

로, 가족내 신세대주부의 삶의 질을 연구해 봄으로, 신세대주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삶의 질을 기준 논문에서 이제껏 시도되지 않은 가정경영과 연계하여 인과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시금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신세대주부는 비교적 근대적·합리적으로 가정경영의식 및 행동을 하고 있으며, 가정경영의식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가정경영자로서의 신세대여성이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삶의 목표를 지니는 것 못지 않게, 가족원의 질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을 행동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시사케 한다. 즉 이를 동기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의식을 행동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세대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신세대주부는 가정생활과 삶 전반에 거쳐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매우 긍정적인 입장으로, 신세대에 대해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는 기성세대의 우려를 다소나마 완화시켜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가정경영의식·행동과 가정생활만족도가 직·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 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개인 및 사회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즉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법제도의 개선이나 가정경영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여러 부차적인 제도의 마련 등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세대주부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중추적 담당자로서, 이들이 가정의 의미를 소중히 생각하고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21세기의 우리사회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결론과 논의를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계자료와 설명은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했던 몇 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신세대주부를 이해해 보고자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신세대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제요인을 포함한 총체적인 모델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보며, 나아가 가족및 사회와의 보다 포괄적인 관계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점점 다변하는 신세대가족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 다양한 생활유형을 지닌 신세대 개인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기존의 그릇된 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신세대를 그 자체의 모습으로 인식하며, 기성세대와는 다른 이들의 특성을 성장기체로 활용하여, 전반적인 삶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보급과 교육이 사회전반에 고르게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혜경(1995). 중년기 주부의 외출복 구매문제 인식 및 관련 변인. *숙대박사학위논문*.
- 2) 김경숙(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대박사학위논문*.
- 3) 김동일·심재웅·강철인(1981).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사회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소.
- 4) 김미정(1994). 신세대 주부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및 관리행동. *숙대석사학위논문*.
- 5) 김인숙·정용선(1995). 세대별 소비지향태도와 소비자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5). 39-50.
- 6) 김정원(198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적응에 관한 조사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 7) 김효숙(1988). 도시부부의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 8) 공보처(1995).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식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공보처*. 1995.

- 9) 남은주(1983). 도시주부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 10) 노자경·최은숙(1995). 빈곤농가주부의 소비자 기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58-68.
- 11) 두경자(1990). 가정관리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 *중앙대박사학위논문*.
- 12) 문숙재(198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의식과 실태조사. *이대논총* 37, 351-379.
- 13)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권 2호.
- 14) 박운아(1988). 소비자태도와 소비자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15) 박재홍(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가을호), 651-683.
- 16) 박혜인·홍현주(1987).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 *과학논집·계명대 생활과학연구소편*, 53-63.
- 17) 배희분·옥선화(1993). 취업주부의 부양자역할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34-148.
- 18) 백경미(1995). 도시주부의 과시소비성향과 영향 요인.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19) 신수진(1993). 성인초기자녀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 20)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21) 윤춘화(1994). 신세대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마케팅전략을 위한 실증적 분석. *한양대석사학위논문*.
- 22)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간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35-59.
- 23) 이기영·조영희(1992). 관리기능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0(4), 279-292.
- 24) 이길표(1983).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연구. *고대 박사논문*.
- 25) 이팡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 26) 이정숙(1994).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족도. *숙대박사학위논문*.
- 27) 이정연(1991). 한국도시남편이 지각한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박사학위논문*.
- 28) 이정우·오경희(1988). 도시주부의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 *숙대 생활과학연구지* 2, 27-57.
- 29) 이정우·김명자·계선자·박미석·지금수·김경숙·이정숙·박미금(1996). 신세대 기혼남녀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정경영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4(6), 367-385.
- 30) 이정우·김명자·계선자·박미석·지금수·김경숙·이정숙·박미금(1997). 신세대기혼남녀의 라이프스타일, 가정경영의식 및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1), 15-29.
- 31) 이해경(1986). 부부권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 32) 임정빈·임혜경(1988).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223-249.
- 33)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1994). *가정관리학*. 서울:학지사.
- 34) 장명숙(1976). 우리 나라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의 실태조사와 그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 가정대학 논문집*(1), 21-53.
- 35) 장현섭·박영숙(1994). “제멋대로 자란아이들”. “우리가족 이대로 좋은가?”2. *가족문화연구회* 심포지움 두 번째 모임, 59-78.
- 36) 장혜경(1992). 도시주부의 소비자의식과 자원보전행동에 관한 연구. *숙대석사학위논문*.
- 37) 조은정(1994). 신세대소비자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흐.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38) 조혜선(1990). *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세대차이* 연구. *연대석사학위논문*.
- 39) 최동숙(1991).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대박사학위논문*.
- 40) 통계청(1995). *한국의 사회지표*.
- 41) 한국사회학회(1990). *한국社会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
- 42)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 43) 한남제 외(1994). 한국가족관계의 문제-방황하는
자녀, 소외된 노인. 서울:다산출판사.
- 44) 현오석(1975).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
대석사학위논문.
- 45) 황동일(1994). 新세대, SIN세대, 후세대 그리고
자본주의.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현실문화연구.
54-71.
- 46) Andrews, F.M. & Withey, S.(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 47) Berkowitz, L. & Suterman, K. G.(1978). The
traditional socially responsible personality.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32.
- 48) Bradburn, N.M. & Caplovitz, D.(1965). Reports
on happiness. Chicago : Aldine.
- 49)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50) Mammen, S. & Whan, H.M.(1987). Family
conspicuous consumption and its determinants.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18-321.
- 51) Park, M.S.(1992). Ecological modeling of quality
of life among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52) Schum, W., McCollum, E., Bugaiahis, M., Jurich,
A., & Bollman, S.(1986). Characteristics of the
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 scale in regional
sample. Psychological Reports 58. 975-980.
- 53) Walker, R., Bubolz, M.H., & Park, M.S.(1991).
Contributions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to
quality of family life of mid-life women and men.
In F. Bauer(Eds.). Family economic well-being in
the next century challenges, changes, continuity,
proceedings of 1991 conference workshop. Sponsored
by Family Economics-Home Management
Section.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Meeting. Minneapolis. MN. 167-179.